

# 제조업체 체감경기 1분기만에 상승세 꺾여

### 전북상공회협회, 3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 97... 전분기 대비 16p 하락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과 미국, 중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성장둔화 예상 속에서 고유가, 고금리 등 대내외 위협요인이 증가되면서 우리지역 제조업체들이 예상하는 3분기 경기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 4개상공회의소의 협회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공동으로 도내 11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3/4분기 전망치는 '97'로 전분기(113)대비 16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치는 전분기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2분기만에 기준치

를 넘기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으나 1분기만에 다시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도내 기업들의 항목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매출액(101)은 기준치 '100'을 넘어 3분기 호전을 예상한 반면, 영업이익(90)과 설비투자(97), 자금사정(88)은 기준치를 밑돌며 3/4 분기에도 부진을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농식품(114), 비금속(100), 자동차부품(100)은 3분기 기준치를 상회, 경기가 호전될 것이

라고 보인다. 반면, 지역 섬유·의복(67), 화학(91), 전기·전자(67)는 원료 공급망 제한 및 생산비용 증가로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내 기업들의 규모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대기업·중견기업의 BSI는 '115'로 3/4분기 신제품 출시 등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여 경기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낸 가운데, 중소기업(90)은 기준치 '100'을 넘지 못하며 3분기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초 계획한 상반기 사업실적 목표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소폭 미달(36.1%)', '대폭미달(21.9%)'이라는 부정 응답은 57.0%, '목표수준 달성(36.0%)', '소폭 초과달성(7.0%)'

이라는 긍정응답은 43.0%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들은 올해 3/4분기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로는 '내수 소비 위축(36.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뒤를 이어 '유가원자재가 상승(26.4%)', '고금리 장기화(12.3%)', '해외수요 부진(10.4%)', '규제강화 등 국내정책이슈(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현재 지역 경제 상황은 유가·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회복세 둔화와 더불어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제조업 경기 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정태는 1일 전주상에서 (사)전북외국어자원봉사회(회장 나춘균)와 '상공인 외국어 자원봉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상공인 외국어 서비스 지원

###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외국어자원봉사회와 협약 체결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정태는 1일 전주상에서 (사)전북외국어자원봉사회(회장 나춘균)와 '상공인 외국어 자원봉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 및 상공인을 위한 외국어 자원 봉사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 내 국제 교류, 불어, 독일어 등) 단체로 풍부한 통역봉사회원(50명 이상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언어 통역봉사(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등) 단체로 풍부한 통역봉사회원(50명 이상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오는 10월 전주에서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재외동포 경제인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인들과 지역 기업들의 경제교류 기반을 확대하는 등 참례된 전북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협약이 가지는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사)전북외국어자원봉사회는 다양한 언어 통역봉사(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등) 단체로 풍부한 통역봉사회원(50명 이상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옥기 기자

## 전북은행,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이동영업점 '썩버스' 운영 시작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1일부터 고객에게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위한 이동영업점 '썩버스' 운영을 시작한다.

움직이는 은행 영업점인 전북은행 썩버스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의 접근성 제고 및 이용 편의성 등을 위해 개점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 지점이 없거나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금융 소외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역 축제 현장과 관광 및 휴양지 등에도 필요시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썩버스에는 자동화기기(ATM)1대를 탑재했으며, 계좌개설, 카드발급, 명절 연휴 기간 신권교환, 대출상담 등 간단한 은행 업무가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썩버스 운영으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들의 금융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전북은행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지역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중소기업 80%,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해야"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500개사(중기업·소상공인 300개사,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현재 보유 대출잔액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5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중기업·소상공인은 '5억원 미만'이 91.7%로 대부분이었고, 중소기업은 5.9억원 미만 49.0%, △10~25억원 16.5%, △5~10억 12.0%, △100억원 이상 9.5%, △50~100억 7.5%, △25~50억 5.5% 순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영부담 정

도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58.2%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45.0%로 중소기업(17.5%)보다 약 2.5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금리 부담 대응방안(복수응답)은 △비용절감 42.4%, △대응하지 못함 30.0%, △저금리 대출대출 활용 20.0%, △금리인하 요구권 사용 11.4%, △기타 4.8% 순으로 조사되어, 자구적인 비용절감 외에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10개

중 8개가 넘는 80.8%로 나타났고, 이중 46.0%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7.0%로 중소기업 29.5%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가 77.4%로 가장 많았고, △목표물가(2%대) 달성 47.4%, △투자·고용 확대 40.4%, △소비여력 확충 22.8%, △주요국 금리인하 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경 중소기업정책총괄실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블루베리 과수원, '작은상제집나방' 피해 주의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근 10년간 블루베리 농가에서 해충 '작은상제집나방' 피해가 잇달아 보고됨에 따라 철저한 예방 관찰과 방제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발생이 확인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 일부로 범위가 넓지 않으나 처음 발견한 제주도를 벗어나 내륙에서도 발생한 점으로 미뤄 작은상제집나방이 내륙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7월은 블루베리 새순이 한창 자라는 시기여서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대표적인 작은상제집나방 피해는 애벌레에 의해 새순 잎 등이 말라 죽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다른 순나방류처럼 작은상제집나방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부드러운 새순 줄기를 뚫고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 새순은 끝부분부터 시들거나, 시든 부분이 검붉게 돼 말라 죽는다. 또 중간 크기로 자란 애벌레는 새순에서 나와 실을 토해내 거미줄 같은 망을 형성하고, 집단으로 모여 잎맥을 제외한 잎 표면을 갉아 먹기도 한다.



어른벌레(성충)는 몸길이 10mm 내외로 작고 전체적으로 흰색을 띠며, 특이하게 갈색 선이 사선으로 나 있다. 애벌레는 녹색형과 갈색형이 있는데, 피해 증상이 생리장애나 다른 해충으로 오인될 수 있어 세심하게 관찰한다.

/김옥기 기자

## 전북은행, 'JB와 CC할래요? 이벤트'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JB와 CC할래요? JB 커넥트 카퍼(Correct Card) 이벤트'를 실시한다.

6월말 기준 전북은행 원화 여·수신 잔액 및 평균 잔액이 10만원 이하 법인 신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이벤트 종료 시점인 오는 9월말 기준 전북은행 입출금

통장에 잔액 500만원 이상이면 3개월간 평균 잔액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벤트 기간 동안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500만 원 이상이면 중 1개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응모된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에게 IC전자 푸리카어 공기청정기(4명), 네스프레소 커피머신(8명), SK 모바일 주유 쿠폰 3만 원권(100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경진원, 일본시장 진출 위한 선물용품 전시회 참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쟁성장진흥원(원장 윤여봉)이 일본시장 개척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이번 전시회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도내 화장품 및 웰스케어, 유아용품 등 다양한 소비재 관련 기업 10개사가 참여해, 일본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 전시회의 특징은 일본 최고의 선물용품 전시회로 일본시장과 아시아

태평양 마켓으로 진입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전시회이다.

LIFE STYLE WEEK 라는 큰 타이틀 아래 카페코리얼 9가지의 전문 전시회가 동시 개최되어,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일본 현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진원은 전시회 참가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 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사를 활용하여 지원 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